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71

1 국제교류원 칼럼

미나미오스미(南大隅) · 본토 최남단의 세계 (후편)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원 이민(싱가포르 출신)

2 가고시마 국제교류 A-Z

산마리노 특명전권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3 현비 유학생 칼럼

꿈 같은 여행,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의 선조의 땅으로

- 일본계 브라질인 가와사키 DANIELA 유카(가고시마대학)

4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이즈미(出水)시 「하코자키 하치만 신사(箱崎八幡神社)」 ~거대한 두루미 오브제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미나미오스미(南大隅) · 본토 최남단의 세계 (후편)●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원 이민(싱가포르 출신)

(본 칼럼은 제 169 호의 후편입니다.)

사타곶(佐多岬)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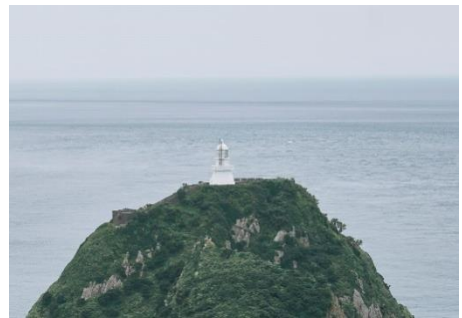
일본 본토 최남단의 사타곶(佐多岬) 전망대에서 경치를 즐기다 보니 반짝이는 등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등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외국인 리처드 헨리 브런튼 씨가 메이지 4년(1871)에 건축한 사타곶(佐多岬) 등대였습니다. 이 등대는 메이지 시대에 외국선으로부터 일본의 연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사타곶(佐多岬) 등대는 브런튼 씨가 건축한 26 개의 등대 중 유일한 원양 등대로, 사타곶(佐多岬)에서 50m 쯤 떨어진 오와지마(大輪島)에 있습니다. 이 등대는 쇼와 20년(1945) 공습에 의해 파괴되어 쇼와 25년(1950)에 재건되었으며, 「일본의 등대 50 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본토 최남단의 곳에 위치한 하나의 등대... 그 고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등대지기는 과연 어떠한 기분으로 이곳에 있었을까요?

우연히도 몇 년 전에 본토 최북단인 홋카이도의 소야곶(宗谷岬)에 다녀왔습니다. 본토 최남단의 사타곶(佐多岬)에 서 있으니 두 곳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열대의 따뜻함과 울창한 열대림을 품은 최남단, 아한대의 차가운 바람과 광활한 토지, 완만한 구릉을 품은 최북단이라는 차이점도 있었지만, 두 곳 모두 일본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독특한 황량함을 지녔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사타곶(佐多岬) 등대



본토 최남단의 사타곶(佐多岬)



가고시마에 있는
본토 최남단 기념비



홋카이도에 있는
본토 최북단 기념비



맑은 날에는 이부스키의 가이론다케가
보이는 전망대 반대편의 경치

사타곶(佐多岬) 등대지기 관사 터

훌륭한 경치를 충분히 즐긴 후, 다시 열대림을 지나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울창한 열대림 속에 있는 돌계단을 통해 사타곶(佐多岬) 등대지기 관사 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등대를 관리하던 등대지기의 관사가 있던 터로, 식물들이 우거져 남국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현재는 외벽의 일부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등대지기 관사 터로 가는 돌계단

아름다운 바다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지만,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웬지 모를 등대와 같은 고독함이 느껴졌습니다. 등대지기와 가족들의 이곳에서의 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입구로 돌아가 전무님과 담당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등대지기 관사 터의 유적



도중에 방문한 전국에서도 드문
병립 도리이(鳥居)의 스와(諏訪) 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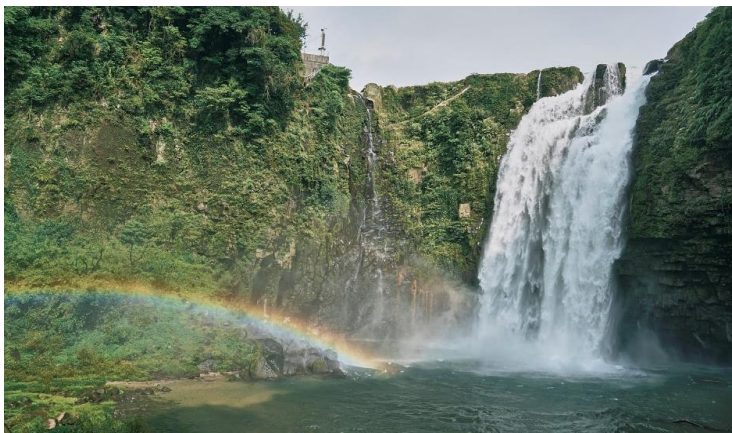
오가와노타키(雄川の滝) 폭포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훌륭한 자연 경관으로 사랑받고 있는 오가와(雄川) 상류에 위치한 오가와노타키(雄川の滝) 폭포입니다. 오가와(雄川) 계곡의 산책로를 걸으며 맑은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음을 들으니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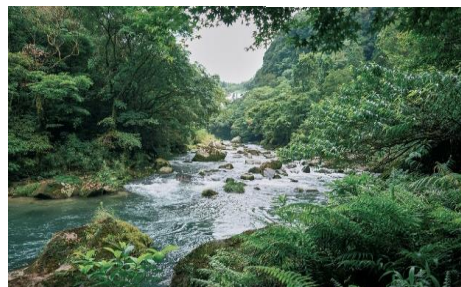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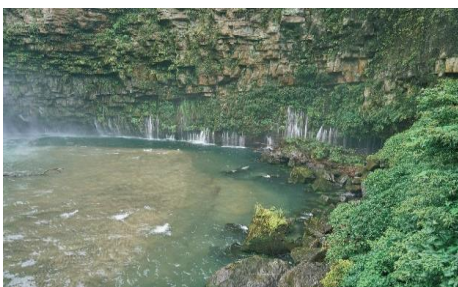
오가와노타키(雄川の滝) 폭포에 도착하니 장대한 경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보통 때와는 다르게 많은 양의 물이 떨어져 엄청난 굉음을 내었습니다. 그 후, 물과 빛의 완벽한 조합이 만들어 낸 멋진 무지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폭포로 가는 산책로



천연 에어컨 스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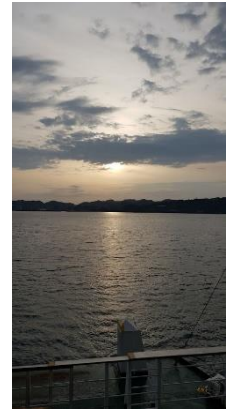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매우 귀중한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해 주신 미나미오스미초와 미나미오스미초 관광협회, 국제교류협회의 동료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름을 걸친 가이몬다케



아름다운 석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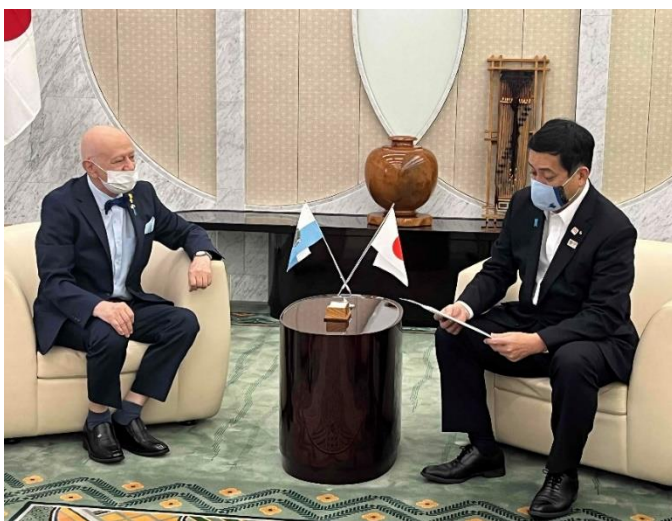
●산마리노 특명전권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

지난 8월 9일, 산마리노 공화국 대사관의 Manlio Cadelo 특명전권대사가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Manlio 대사는 지난 8월 8일, 가노야(鹿屋)시에서 산마리노 공화국 대사관의 주최로 열린 가고시마와 미야자키의 풍부한 식재료와 문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계 X 로컬s 가스트로노미의 저녁」과 아이라산료(吾平山上陵)에서 느낀 가고시마의 훌륭한 자연 경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시오타 지사는 가고시마 국제우호대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는 것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고시마와 산마리노 공화국과의 교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좌: Manlio 대사 / 우: 시오타 지사

- 꿈 같은 여행,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의 선조의 땅으로 ●
- 일본계 브라질인 가와사키 DANIELA 유카(가고시마대학)

지난 8월 6일, 저는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의 요시무라 사무국장님과 함께 아마미 오시마에 갔습니다. 아마미공항에 도착한 후 곧장 인근 식당에서 지역의 명물인 「게이한(鶏飯, 아마미 지방의 향토 요리인 닭고기 국밥)」을 먹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켄(宇検)으로 향하는 도중 해안가의 바위가 하트 모양으로 파였다는 「하트 록」에 들렀지만, 아쉽게도 만조 시간과 겹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최근에 생긴 아마미오시마 세계유산센터로 향했습니다. 아마미만의 특징을 지닌 자연과 동식물의 전시를 관람한 후, 오후 4시쯤이 되어서야 드디어 우켄촌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가족의 친구인 다카다 나오토시 씨, 사유리 씨 부부가 호텔에서 맞아 주신 덕분에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유리 씨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포르투갈어를 합니다. 이번 방문 내내 다카다 씨 부부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모토야마 아키라 우켄촌장님께서 직접 호텔에 방문해 주셔서 이번 방문의 계획과 저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켄촌의 특산품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정다감한 촌장님이셨습니다!

게다가 현지 신문사 두 곳의 기자분들과도 만나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는 이튿날까지 이어졌고, 이번 저의 방문에 대해서 지면에 크게 실어 주셨습니다.

이날 밤에는 우켄촌의 주민분들께서 환영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우켄촌사무소의 다쓰시마 쓰키미 기획관광과장님과 2018년 브라질을 방문하셨던 무라노 미요지 씨, 기지마 다카유키 씨, 와타리 히로후미 씨, 우치다 겐지 씨, 그리고 친척인 후미오카 마나부 씨, 시라이 도모야 씨, 다카다 나오토시 씨 부부가 맞아 주셨고, 우켄촌사무소의 직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환영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주민분들께 아마미의 공예 작가가 만든 팔찌와 귀걸이도 받았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느껴지는 아름다운 팔찌와 귀걸이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한 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저의 선조들의 이야기, 예전에 브라질을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 등등 주민분들과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니 어느새 무라노 씨와 사유리 씨께서 샤미센(三味線, 일본의 대표적인 현악기)을 꺼내 오셔서 지역의

「시마우타(島唄, 아마미 군도의 민요)」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접해 본 시마우타의 노랫소리가 밤하늘의 별들과 어우러져 노래에 깃든 정서가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이튿날에는 사무소의 우치다 씨, 다카다 씨 부부와 함께 촌내를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선조의 묘를 찾아보았습니다. 묘는 공동의 납골당으로, 그곳에 꽃과 향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브라질로 이주한 우켄촌 출신자들이 모은 의원금으로 저의 증조부께서 만드신 「브라질교(伯國橋)」를 건너 할머니의 사촌인 쓰다 요쓰오 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에는 촌내의 경관 포인트인 미네타야마 전망대(峰田山展望台), 후나코시(船越) 해안, 유완다케(湯灣岳), 야케우치(焼内)만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들을 둘러보며 왜 아마미가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사유리 씨가 저희들을 위해서 브라질의 가정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메뉴는 피카냐(소고기 스테이크), 꼬챙이(닭고기 크로켓), 파스텔(브라질식 튀김만두), 과일, 그리고 페이조아다(검은콩을 고기와 함께 끓인 음식)와 밥이었습니다. 그리웠던 브라질의 맛에 반가운 마음으로 단숨에 먹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어느덧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고 우켄촌을 떠나 요시무라 국장님과 함께 나제(名瀬)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가사리(笠利)에서 쓰다 히사오 씨와 그 가족분들이 찾아오셔서 1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후미오카 마사키 숙부(브라질 가고시마현인회장)께서 소개해 주신 나가타 요스케 씨가 경영하는 호스텔에 갔습니다. 나가타 씨는 한때 브라질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 숙부와도 그때의 인연으로 아는 사이가 되었으며, 브라질어(포르투갈어)도 영어도 잘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호스텔 이곳저곳을 친절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3 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망의 오시마쓰무기무라(大島紬村)를 방문했습니다. 아마미에 가기 전부터 꼭 한번 가 보고 싶었던 곳으로 기대한 만큼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오시마쓰무기(大島紬, 오시마 명주)의 도로조메(진흙 염색)와 짜는 방식 등 각각의 공정 기술이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돌이켜 보면 짧은 일정 속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만났던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친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아마미를 방문하여 이분들을 만나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신 우켄촌 여러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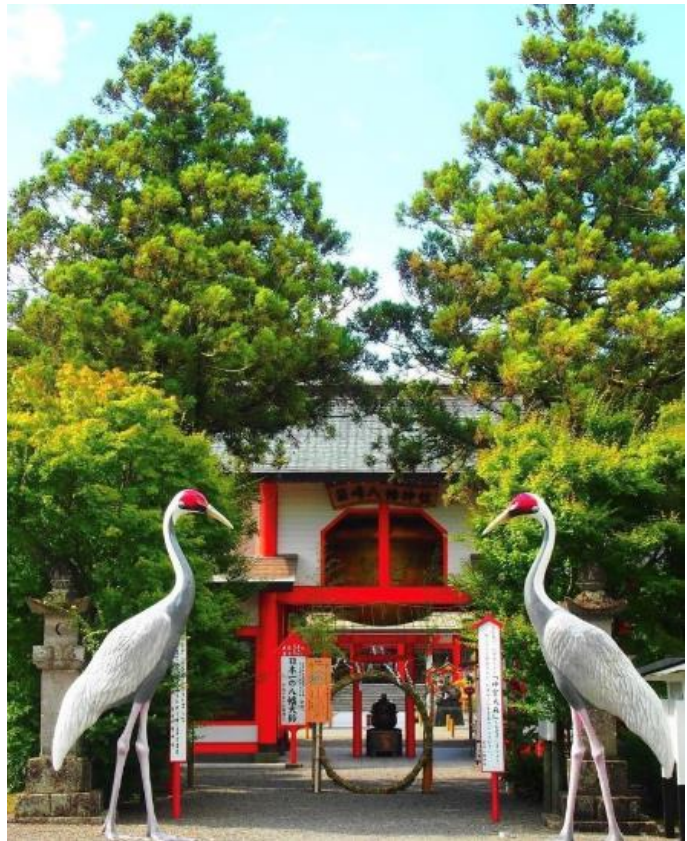
●이즈미(出水)시 「하코자키 하치만 신사(箱崎八幡神社)」 ~거대한 두루미 오브제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사진은 이즈미(出水)시에 있는 「하코자키 하치만 신사(箱崎八幡神社)」입니다!
두루미 도래지로 유명한 이즈미시에 있는 이곳 신사의 입구에서는 거대한 두루미 오브제가 여러분을 맞아 줍니다.

경내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방울과 귀여운 두루미 오브제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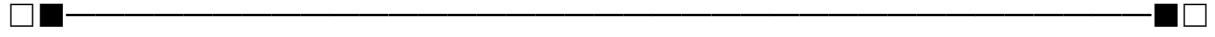
Photo by @o.sotoasobi (Instagram)

멋진 사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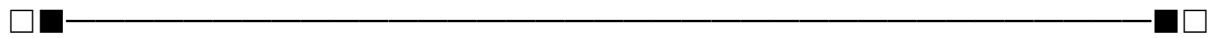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이번 달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은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저희 가고시마현청 메일 매거진은 가고시마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정보의 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자 일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